

송영길 “경선 끝나면 대장동 의혹 당이 총력 대응”

“이재명 외로운 대응...중과부적
박수 받을 일 조만간 나올 것”
당 TF 꾸려 본격 대응키로
윤호중 ‘50억 클럽’ 공세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전방위로 방어에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경선이 끝나면 당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은 이르면 10일 대선 경선이 종료되는 대로 별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당 차원의 ‘대장동 의혹’ 대응에 집중할 전망이다.

송 대표는 지난 6일 밤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경선 중이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세계 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었고 자제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이 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 여론조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 일방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혼자 외롭게 대응하고 있다 보니 중과부적이라 이러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그는 “오려라 (이 지사가) 박수 받을 일 나올 것”이라며 “특히 구도심 공원 개발을 (대장동 개발과) 하나의 연결사업, 프로젝트로 묶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이 구도심 공원개발사업으로 2000억 원 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정말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청와대도 말리는 분위기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너무 많았다”며 “좀 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 아내가 그날 메시지를 보냈었다. 언론중재법 하나 통과 못 시키면 집에 들어오지 말라, 당 대표 때려 치우라고 했다”며 “집에서 쫓겨나는 것 아닌가 하고 아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당시 페이스북에 올렸던 사진을 환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제가 그날 강아지를 안고 쓰러져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송 대표는 경선 이후 ‘원탁’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하다”고 단언하면서 “이 정도면 약하다. 2012년 인천 경선이 열린 삼산체육관에서는 물병을 던지고, 신발을 던지고 하면서 경선이 중단되기도 했다. 우리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 관계자는 “조만간 당 후보가 선출되는 대로 대장동 관련 TF를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경선이 끝난 뒤 깊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이 ‘당 대 당’ 대결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야당은 지도부를 앞세워 일사불란하게 ‘이재명 게이트’ 공세를 펴는 것과 달리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응을 자제해왔다. 야당의 ‘타킷’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아직 경선 주자 신분인 만큼 경선 과정에서 당이 공식 대응에 나설 경우 자칫 ‘특정 후보 편들기’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지사의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중심으로 지도부가 이 지사에 유독 우호적이라는 ‘이심송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내용을 피하려는 차원이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열린 최고위 등에서도 경선이 종료되는 대로 당 차원의 ‘대장동 TF’ (가칭)를 꾸려 화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이슈가 대선 정국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당의 후보가 선출되면 곧바로 전열을 가다듬어 야당의 공격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데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도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 공개를 연결 고리로 대장동 이슈의 본질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점을 부각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파상 공세를 펼쳤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전날 공개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을 언급하고 “박근혜 호위 검사들이 회대의 개발농단 사태를 벌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도 “명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의 공통점은 과거 친박이자 현 국민의힘 관련 인사”라며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친박 게이트이자 범 조 카르텔 게이트”라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화천대유 국민의힘 게이트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광산도 의원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문제를 추석 전에 이미 알았지만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은폐했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이재명 26%·윤석열 17%·홍준표 15%

4개 기관 조사...이낙연 11%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을 놓고 정지권 공방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 지사의 지지율이 전주보다 다소 하락한 여론조사가 7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선주자 적합도에서 이 지사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26%로 집계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전주와 같은 17%로 나타났다. 이어 홍준표 의원(15%),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11%) 순으로 나타났다. 유승민 전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각각 2%로 뒤를 이었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이 지사가 44%, 윤 전 총장이 33%를 기록했다. 이 지사는 홍 의원의 대결에서도 40% 대 37%로 역시 앞섰다. 가상 양자 대결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경우 윤

전 총장과의 가상대결에서 39%를 기록해 윤 전 총장(35%)보다 우위를 기록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홍 의원의 대결에서는 35%를 기록하며 홍 의원(40%)보다 뒤처졌다.

진보 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32%를 받으며 선두주자 흐름을 유지했다. 이 전 대표는 전주보다 6%포인트 급등했지만 22%를 기록, 이 지사와 10%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보수진영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홍 의원이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26%를 기록하며 선두를 유지했다. 윤 전 총장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21%였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후보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 대선에서 누가 당선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가 이 지사를 택했다. 윤 전 총장(21%)과 홍 의원(10%), 이 전 대표(5%)가 뒤를 이었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이재명 캠프 “50억 명단 공개는 국민의힘 게이트 자백한 셈”

고발 사주 의혹도 공세 수위 높여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7일 대장동 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비난을 이어갔다.

이 지사 캠프 전략본부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일일 브리핑에서 “박수영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자백한 셈”이라며 “화천대유는 토건 비리 불로소득 유령들의 나눠 먹기 분탕질 종합판이다. 검찰은 신속하게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사건의 배경에는 두 종류의 설계가 있다. 하나는 개발이익 공익환수 설계로 이재명이 설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주도

한 사적이익 추구 도둑질 설계”라며 “지금의 분탕질은 이 도둑질 설계에서 나온 것이다. 민간 영역에서 이뤄진 것을 이재명과 연관시키는 시도는 무리”라고 주장했다.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이 지사에 대해서만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데 매우 유감”이라며 “김민배씨와 언론·법조인 친구들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압수수색해야 하는데 그건 안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재명 캠프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인 김용 의원이 녹취파일에서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 난 빠져야 한다”고 말했다는 언론 보도를 토대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캠프 총괄본부장인 조정식 의원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하는 중대범죄인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에 대해 ‘고발사주는 없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하는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고 자신들의 처부가 드러나는 것을 우려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총괄본부장 박주민 의원은 “김용 의원이 기자회견으로 해명했던 내용이 모두 거짓이란 게 드러났다”며 “광산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수와 마찬가지로 김용 의원 등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을 국민의힘이 국민기반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사랑과 감사의 67년
1954 ~ 2021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2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9. 10(금) ~ 14(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학 과	수 시	정 시	
인문사회	신 학 과	30	15	
	한국어교육학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코칭명생교육상담학 전공)	2	2	
사범	유아교육과	31	3	
예능	음악학부	7	3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6	
총 계		93	29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2021. 9. 10(금) ~ 14(화) · 전 형 일: 2021. 10. 1(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1. 12. 30(목) ~ 2022. 1. 3(월) · 전 형 일: 2022. 1. 10(월)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